고창 지역상품권 이용액 1년새 6배 늘었다

코로나19 경기 위축 속 70억→477억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자역할 톡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발행한 지역 화폐 '고창사랑상품권'과 '높을고창카드'가 코로 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용금 액이 전년보다 6.8배 급증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상품권 발행액은 모두 502억원으로 지난해 80억원보다 6.3배 늘었다. 상품권 판매액은 총 477억원으로 전년(70억원)대비 6.8배 급증했다. 이 중 개인 판매액이 267억원에 달해 지난해(40억원)보다 6.7배 증가했다.

현금으로 환전된 금액 역시 438억원으로 지난 해 58억원에 비해 7.6배 증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입증했다.

확대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유 통되며,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에



고창군이 발행한 지역화폐 올해 이용금액이 지난해보다 6.8배 증가한 477억원에 달했다. 〈고창군 제공〉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창군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트·식 당·주유소·커피숍 등 가맹점 수를 대폭 늘리기 위 해 적극 홍보했다.

이 같은 결과로 사실상 노점상 등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한 고창군 전체 상점에 고창사 랑상품권이 통용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월 말 종이형 고창사랑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해 카드형 고창사랑상품권인 '높을고 창카드'를 출시했다.

사용자는 휴대전화에서 '고향사랑페이' 애플리 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충전과 사용내역조 회, 잔액관리, 소득공제, 보유한도 증액 신청이 가 능해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또 '높을고창카드'는 개인 구매자에게는 10% 추가 혜택과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소상공인은 가맹점 신 청과 환전의 번거로움이 없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더 쉽고 간편하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앞으로 280억원 규모의 10% 할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명품농업대학' 신입생 100명 모집

농업기술센터 31일까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을 선 도할 전문농업경영인육성을 목표로 운영 하는 '남원명품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 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31 일까지다.

명품농업대학은 4개반으로 포도반 25명, 농산가공반 25명, 스마트팜반 25명, 농업기계반 25명으로 총 100명을 뽑는다. 교육은 과정마다 공통과목, 이론, 현장·실습교육 등이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하며 일정 전형을 거쳐 입학자격을 갖게 되지만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명품 농업대학 최초신청자는 가산점을 받게

신청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주민등록등본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다.

남원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농업 인들이 교육이 진행될수록 영농마인드가 변화되고 생산기술이 향상돼 지역농업인 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교육과정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군산시의회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건의문 채택

군장산단 철도공사 피해 보상 성명도

군산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고용위기지 역 지정 연장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등을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고용 창출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

정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이 붕괴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그러나 올해 상반기고용률은 53%로 전국 평균 60.4%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위기지역에서 군산이 배제돼 정부 지

원이 중단된다면 최소한의 고용 유지도 어려워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27만 군 산시민의 절망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는 "국책사업인 군장산단 인입 철도 공사로 주민의 가옥 균열, 도로 파손,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했는데도 국가철도공단이 보상에 미온 적"이라며 피해 조사와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도 채택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청 간부 공무원 71명 '희망나눔 성금' 1610만원 기탁

연말연시 맞아 이웃돕기 성금 모금

정읍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이 웃돕기성금 모금에 앞장섰다.

유진섭 시장과 곽승기 부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1명은 지난 7일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2021 나눔 성금' 1610만원을 기탁했다.

간부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 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모아 자발적 으로 참여했다.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취약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연말을 맞아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 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유진섭 시장과 곽승기 부시장 등 고창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1명이 지난 7일 '희망2021 나눔 성금' 161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 〈고창군 제공〉

남원 지리산 정령치 도로 내년 3월까지 교통통제

남원시가 지리산국립공원 정령치를 넘어가는 지방도로 730호선의 차량 통행을 7일부터 내년 3 월19일까지 통제한다.

교통통제 구간은 남원 주천면 고기삼거리~정령 치~산내면 달궁삼거리의 12㎞이다. 급경사 구간이 고 지대가 높아 눈길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이다.

남원시는 지방도 60호선 주천면 육모정~고기 삼 거리 구간도 눈이 오면 차량 통행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 염화칼슘 300t 과 친환경 제설제 350t, 모래주머니 2만개,제설장 비 260여대를 확보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익산시, 고용부·원광대와 청년 고용 활성화 업무협약

익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정착 유도를 위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원광대학 교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 으로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 고용률 증대에 나선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 훈련·정보를 공유한다.

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공동 발굴과 상호 연계, 고용 정책 아이디어보 공유, 취업지원 업무 제공 등 제반 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아파트 청약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군산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회를 위해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당부터 시행 중인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하

이달부터 시행 중인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제도는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투기세 력 차단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다.

군산시는 이 제도를 통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토 록 한다.

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도·단속 대상은 집값 담합행위와 일명 떳다방 등의 불법 중개행위다.

군산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현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i

